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제 683 호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 위한 수사 지시 안 했다”

‘구청장급 귀책’ 메시지 국감서 논란…윤희근 “기억 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안 했다”고 부인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던 게 드러났다”는 더불어민주당 천

준호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 참사 직후인 0시40분께 누군가가 윤 청장에게 ‘경찰이 주도적으로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책임을 귀책시켜 초기 가단을 명쾌

히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청장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이 오전 3시께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와

어디선가 책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신속히 우리 청 조치사항이 대통령(V) 등에게 실시간 보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간부 2명에게 보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추궁했다. 윤 청장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서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인식했다”며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지금 제 전화기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속하게 현장을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 인력을 동원하고 교통 관리와 구조를 하라는 업무 지시가 선행됐다”며 “그 이후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문제 가 당연히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대통령 인지, 대통령실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따져 묻자 윤 청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는면서도 모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윤 청장이 참사 당시 놓친 공식 상황보고 2건 외에도 메시지 등으로 총 11차례 연락이 갔었는데 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축소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그 내용은 언론 보도 이후에 확인했다”며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보고 라인인 상황관리관의 전화”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BNK경남은행 간부, 첫 재판서 ‘1천300억대 횡령’ 혐의 인정



측은 “이씨가 맡긴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모르고 운용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며 “횡령 사실을 모르고 이씨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범행과 관련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원을 횡령하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0여차례 위조하고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 한주형 기자

이선균·지드래곤에 마약 공급한 의사 입건…10명 수사선상

배우 이선균(48)씨와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경찰은 A씨가 별도 대가를 받지 않고 이씨와 권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입건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고, 이씨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B(29·여)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우 이선균(좌), 유아인(우)

이밖에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이 입건됐고,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은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과 별개로 권씨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와 권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조성은 기자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김범수 창업자 추가 송치 예정…“나머지 피의자들도 공모 정황 확인”



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 이윤호 기자

환절기, 건강 관리 가전

Himade
인미의자
HM-X6000(G)
하이브리드인미자 폴리보
포함 4,280,000원
149,000 원

Himade
AS-CUBE
전기난방기 총열파 동시 가열
포함 149,000 원

Himade
비데
HMD-C009
하이메이드 풀리보 스탠션비데
포함 149,000 원

Himade
무선진동마사지건
HMD-M005
강력한 BLDC모터 3단계 힘
포함 99,000 원

Himade
전기면도기
HSD-1000
100% 정밀 면도
포함 39,900 원

Himade
건조한 가을, 홈 케어 가전

Himade
HMD-C009
하이메이드 풀리보 물걸레청소기
포함 49,000 원

Himade
건조한 가을, 풀리보 물걸레청소기
포함 232,000 원

Himade
건조한 가을, 강력한 BLDG 모터
포함 259,000 원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 행사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뜻대가 응원합니다

**가까운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하이메이드를 만나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상품”

尹방문 계기 HD현대重 5조원 규모 카타르 LNG선 수주…사상 최대

한·카타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가스 넘어 신산업 협력 확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정기선 HD현대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HD현대 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7척, 액수로는 5조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

역대 최대 규모 수주로, 한중간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 고 있는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줬다.

또 한국과 카타르는 양국은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가스 거래 중심이던 기존의 양국 경제협력의 틀을 디지털, 그린, 바이오, 제조 등 영역으로 확대해 양국 간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양국 기업 간 계약 및 업무협약(MOU)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단연 HD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 대규모 수주였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카타르에너지와 LNG 운반선 17척의 신규 수주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액은 39억달러, 한화로 5조2천억원에 달한다.

카타르에너지는 2020년 6월 HD현대중공업과 조선소 독을 선점하는 계약인 DoA(The Deed Of Agreement)을 체결했다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계약이 이뤄졌다.

이번 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은 단숨에 반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HD현대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118억달러였다.

새 계약액을 더하면 총수주액이 125억달러로 목표의 106%에 달하게 된다.

이번 대형 수주 성사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 업계가 중국 업계를 압도하게 됐다.

올해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수주 규모는 총 60척으로, 한국이 82%인 49척을 가져갔고, 나머지 11척(18%)만 중

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하마다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 산업부 장관이 TIPF에 서명했다.

한국과 카타르는 이전까지 양국 장관이 이끄는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통해 경협 이슈를 관리해왔는데, TIPF 체결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 협력에서 석유·가스·광물 등 공급망 전반, 디지털, 그린, 바이오, 중소기업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아우르는 쪽으로 협력 기반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까지 나아가는 어렵지만,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등으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인 TIPF를 체결하는 통상 전략을 펴고 있다.

한·카타르 양국이 공동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경협 범위를 구체화하고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상시화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당국 간 신속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핵심 광물 확보, 공급망 다변화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지역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기동성 있는 통상 협력의 틀인 TIPF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발판으로 양국 간 경협 발전 단계가 성숙하면 공급망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 내용을 더한 자유무역협

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형태로 전환하는 단계적 통상 전략을 펴나간다는 구

상이다.

한·카타르 TIPF에도 신속한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간 '핫라인'을 가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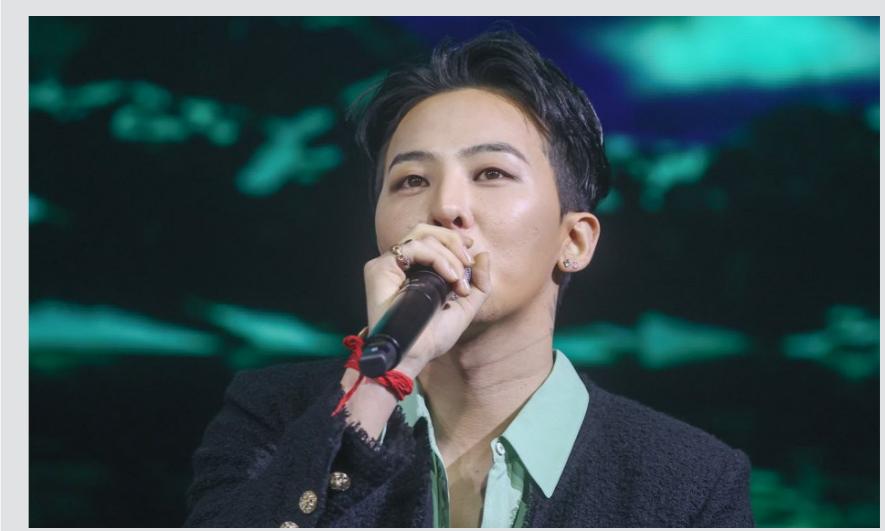
양국은 정부 간 신속 협의의 창구를 지정해 원활한 정책 소통 및 협력 사업 관리 청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카타르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 수산업, 보건,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그간 LNG 중심의 한·카타르 간 경제 협력이 향후 신통상,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의료, 교육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인사말하는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가수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파장 확산

대마초 흡연 혐의 기소유예 전력
경찰 "두 사건 관계 없어"

배우 이선균(48)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권씨의 사례는 이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권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권씨의 소속사 측은 "일본 투어 때 참석한 술자리에서 짧은 일본인이 담배를 권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두세 모금 흡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마약 혐의로 연예인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공개하면서도 지드래곤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직업군, 성별, 혐의 내용, 투약한 마약 종류 등 사실관계도 일제 밝히지 않았다.

또 수사계 직원들의 외부 접촉도 제한하는 등 입단속에 나섰으나 권씨의 입건 사실은 결국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의 이런 대응에 따라 각종 추측이 난무하면서 '유명 가수와 가수 출신

유명인 등 2명이 입건됐다'거나 '내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잇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연예인 2명의 이름 까지 거론되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 휴가를 떠나 오는 26~29일 자리리를 비울 예정이다.

홍보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내사자 관련 정보가 이미 알려졌는데 정작 입건 연예인에 대해서만 항구하는 게 이상해 보인다"며 "결국 알려지면서 추측성 보도로 지목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와 관련해서는 총 8명을 수사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고, 이씨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B(29·여)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5천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이 입건됐고,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은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이씨를 상대로 시약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서정미 기자

17척 수주 본계약…반년치 일감에 올해 목표 초과 달성

국 조선업체들에 돌아갔다.

업계에서는 한국과 카타르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수주 잭폿'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자국 앞바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LNG 수송선 단 확장을 대규모로 추진 중이다.

카타르에너지는 2020년 국내 3대 조선사와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슬롯 계약(독 선점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말부터 실제 발주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카타르는 현재 연간 7천 700만t 수준인 LNG 생산량을 2027년까지 1억2천600만t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많아질 전망으로, 우리 조선업체의 수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TIPF를 체결했

상이다.

한·카타르 TIPF에도 신속한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간 '핫라인'을 가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정부 간 신속 협의의 창구를 지정해 원활한 정책 소통 및 협력 사업 관리 청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카타르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 수산업, 보건,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그간 LNG 중심의 한·카타르 간 경제 협력이 향후 신통상,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의료, 교육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갓생을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갓대있게**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작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직업으로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박근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여러 어려움 잘 극복할 것”

박정희 추도식…“순방서 돌아오자마자 참석한 尹대통령께 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잘 사는 나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염수된 선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매년 이맘때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떠나신 지 44년이 지났다”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다. 전쟁을 겪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난했고 면 고사는 일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시절

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다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라며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뤄지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오늘 해외 순방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준 윤석열 대통령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송유영 기자

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 준비된 것을 안 올리나.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육을 머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형민 기자

한동훈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인기 없어도 할일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에 대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안에 대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거나, 대책을 세울거나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거주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

도 개괄적으로 보면 살해 고의는 실현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를 노린 끝에 범행했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밤중 귀가하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울한복판에서 납치돼 야산으로 끌려가 살해된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모친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살해 사실을 알아차릴 때 받을 충격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 최병훈 기자



호송차 탑승한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뉘우치는지 의문”

한동훈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인기 없어도 할일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에 대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안에 대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거나, 대책을 세울거나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거주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어찌나…새 연인 관련 의혹 일파만파

남씨 어머니 집 찾아간 재혼 상대, 스토킹 혐의 체포…결별 수순 밟는 듯

여자 펜싱 간판이었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로 공개한 전정조(27) 씨를 둘러싸고 사기 전과·성별·신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남현희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가 남현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가족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남현희는 지난 23일 월간지 여성조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전 씨를 두고 교제해온 ‘남자 친구’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인해 은퇴한 승마 선수, 현재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정보통신 사업에 나선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후 전 씨에게 거짓 성별,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등의 의혹이 불거



남현희

과 8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씨에게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가 승마 선수로 활동하며 다수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이력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에는 그가 선수로 등록된 적이 없고, 승마계에도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따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이자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 정유라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랑 동갑이던데 또래 엘리트 선수는 아무도 전정조를 모른다”고 꼬집기도 했다.

2013년 전 씨와 이름이 같고, 외향이 비슷한 여학생이 한국직업방송 프로그램 중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소속으로 출연해 인터뷰한 장면이 10년 만에 다시 언급되는 등 의혹은 갈수록 커졌다. 이런 가운데 당시가 이와 관련해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결국 전씨는 자신의 이력을 알게 된 남현희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장수경 기자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금 보장 및 비보증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PR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드려 보호해드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합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작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다이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 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

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 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최형찬 기자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들 만나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

“무정부 상태’ 표현 많이 회자”…친명·비명 원내대표들 한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 이란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데 많은 분이 동의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국가의 퇴행과 우리 국민들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가결 이후 비명(비이재명)계 징계 문제를 둘러싼 내용을 해결해야 총선 승리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회자하고 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반드시 구해내야 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집권 세력의 폭정을 바로잡고 또 국민 민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겠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단단하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의표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은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며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송원기 기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는 국회서 받아 다른 내부 제보들도”

며, 서면감사는 365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자가 자신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현주 권의위 기조실장이라거나, 최초 제보 과정에 대통령실 전비서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제보 경위를 추궁하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최초 제보가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힘 측인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게 아니라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에서 제보를 받아 감사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당연히 지켜보

/ 권도훈 기자

이태원 참사에 거듭 고개숙인 이상민 “유족찾아 사과 용의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질문에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유족들에게”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어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소회나 아쉬웠던 점, 다짐 등을 묻는 말에도 이 장관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

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가슴하기조차 어려운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윤성 기자

김무성 “인요한 포용·통합 강조, 방향 잘 잡았다”

“尹대통령에 野대표 만남 건의할것”…이석현 “尹, 여야대표 만나면 지지도 오를것”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것은 그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인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정보화’ 세미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거하시기 전 우리 국민에게 상생과 통합,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작금의 혼란한 우리 정치의 해법은 민주주의 실현, 상생과 통합, 화해와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는 정치하는 모두가 가져야 할 철학과 정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빼는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협 공동회장인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대화와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 민생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손도 잡아주고 애당 대표를 향해서는 단식 후 건강은 괜찮냐고 물어봐 주면 상당



인사말하는 김무성 민주협 회장

히 분위기가 풀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렇게 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국회가 순항하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5%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사법 일은 사법에 맡기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도혁 기자

정의 이정미 “녹색당과 선거 연합정당 추진해 총선 대응”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6일 “정의당과 녹색당은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해 총선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난 일요일 녹색당 전국

위원회는 정의당과의 선거 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과 녹색당의 단순합(合)을 넘어 기후정치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정치적으로 모아내는 첫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당 실험은 총선 이후 의회 내의 공동협력 기구와 두 당간의 수준 높은 연대연합으로 지속되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 재창당 추진 기구로서 역할했던 신당 추진단을 신당 추진위원회로 격상할 것”이라며 “녹색 진영뿐만 아니라 정의당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 위기, 불평등, 지역소멸의 과제에 함께하는 제(諸) 세력과 보다 폭넓은 접촉을 통해 지금껏 대한민국 정치가 외면했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의당이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의당 재창당 과정에서 당명을 ‘녹색정의당’(가칭)으로 바꾸면 녹색당 선거 후보자들이 입당해 하나의 정당명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K-콘텐츠, 준비했다 아이가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국제영화극단 김현준 이태민 최경경 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LG

“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지난해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

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훈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 대표 측 경호원과 변호인, 직원 등이 재판장을 가득 채웠고, 밖에는 지지자들이 몰려 선고 결과를 노심초사 기다렸다. 이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

판에서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김승우 기자



박정규 전북도의원(왼쪽)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하라” 전북도의원, 전주→국회 마라톤

전북도의원이 78%나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전주에서 서울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라톤을 뛴다.

박 의원이 참여할 집회는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2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정규(58·임실군) 도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에서 출발, 마라톤으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새만금 국가 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전북도민 3천여명이 비롯해 서울·경기에서 1천여명이 합류해 4천명 이상이 결집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쟁반리 대회와 무관한 새만금 국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박 의원이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마라톤을 뛴다”고 설명했다.

/ 조규현 기자

검찰, 김기준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7년 구형



하도록 시지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격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재개됐다.

/ 한준성 기자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격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재개됐다.

다리 잘린 채 죽은 새끼 고양이들…동물단체 “진상 밝혀라”

서울 서대문구 흥제천 인근에서 다리가 잘린 채 죽은 새끼 길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돼 동물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구청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25일 사단법인 서로같이 동물동행본부(서동행)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시민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사천교 주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의 사체를 발견해 단체에 알렸다. 이 중 3마리는 다리가 잘려 있었다.

서동행은 그러나 구청 등이 제보자의 신고에도 빠르게 조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지난 20일 이번 주 사천교에서 예초작업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오히려 제보자에게 ‘예초 작업 중 고양이들이 죽었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글이 30여건 올라와 있다.

/ 오문섭 기자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 ‘횡령’ 추가기소 2심서 징역 3년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영원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형인 징역 5년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임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백도영 기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로 쓴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임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백도영 기자

모두에게 처음 The Kia EV9

GT-line 풀옵션 (오션 블루)

이스 풀옵션 (아이보리 매트 실버)

KIA
Movement that inspires

사전 계약 중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금융으로 세상을 ● 롱게



고객 보호는 신한의 꺼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금융은 안전한가요?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이룰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떤 신한을 만나더라도
당신의 금융을 가장 먼저 지키겠습니다.

신한의 중심에 소비자 보호를 바로 새기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불공정 거래 의혹’ 영풍제지·대양금속, 26일 거래 재개

“혐의자 체포·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첫날 주가 변동성 클 전망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중단됐던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의 거래가 26일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5일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26일부터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거래가 정지된 두 종목은 5거래일 만에 매매가 가능해졌다.

이들 기관은 “금융 당국은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 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0월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했다”며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주가가 730% 오르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

아지더니 오전 9시 12분께 하한가에 도달했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속[009190]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하한가에 진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로부터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을 구속했으며, 23일에는 영풍제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자의 계좌 동결을 통해 추징보전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제지 사태 후폭풍은 키움증권으로 불어닥쳤다. 키움증권의 고객 위탁 계

좌에서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4천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는 키움증권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5천69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키움증권 측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증권가에서는 회수 가능 금액이 1천 억원대에 그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미수금 사태에 증권업계는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속속 설정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단 금융 당국의 결정으로 26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을 다시금 사고팔 수 있게 됐지만, 당일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6월 15일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로 매매가 정지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은 거래가 재개된 7월 3일 주가가 가격 제한 폭까지 급락하거나 10% 넘게 하락했다.

/ 송진영 기자



아이폰 15시리즈, 어떻게 다를까?

아이폰15 첫 주 판매량, 전작보다 50% ‘껑충’

가계통신비 부담 속 덜 비싸고 지원금 많은 기본형 137%↑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5 시리즈가 국내에서 전작보다 빠른 기세로 인기몰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장조사업체 애틀러스리서치엔 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내 시장에 상륙한 아이폰15 시리즈의 첫 주 판매량은 작년 아이폰14 시리즈의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49.5% 급증했다.

아이폰15 기본형의 출시 첫 주 판매가 아이폰14 기본형보다 137% 불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가장 성장세가 더딘 아이폰15 프로 판매량도 전작보다는 25% 늘었다.

모델별 판매 비중은 아이폰15 프로가 50.7%로 과반을 차지했고, 기본형(29.9%)과 프로맥스(16.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이폰 프로 플러스의 판매 비중은 3%에도 못 미쳤다. 인플레이션 속에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종에 쏠리는 모습이다.

/ 박재호 기자



강동 프레스티지원’ 청약에서도 133가구 모집에 1만1천437명이 몰려 올해 강동구 최대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86대 1이었고, 전용면적 59㎡A가 595대 1로 평형별 최고 경쟁률을 차지했다.

/ 권정석 기자

‘동탄e편한세상’ 올해 최대 청약 접수 기록

554가구 모집에 총 13만3천명 몰려

경기 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 올해 최대 청약 접수 기록이 나왔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에서 554가구 모집에 총 13만3천42명이 몰렸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가운

데 가장 많은 청약 접수 건수로, 평균 경쟁률은 240.15대 1이었다.

평형별로 보면 전용면적 95㎡A가 430.4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 아파트는 경기 화성동탄2 택지개발 사업지구(장지동)에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천22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입주 예정일은 내년 6월이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서울 ‘e편한세상

었다. 고가 모델인 프로맥스와 프로는 지난해 아이폰14 출시 첫 주 판매 비중이 각각 17.8%, 60.6%에 달했으나, 올해 아이폰15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각각 1.1% 포인트, 9.9%포인트 내려갔다.

가계통신비 부담과 더불어 기본형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작년 아이폰14 때보다 87.5% 오른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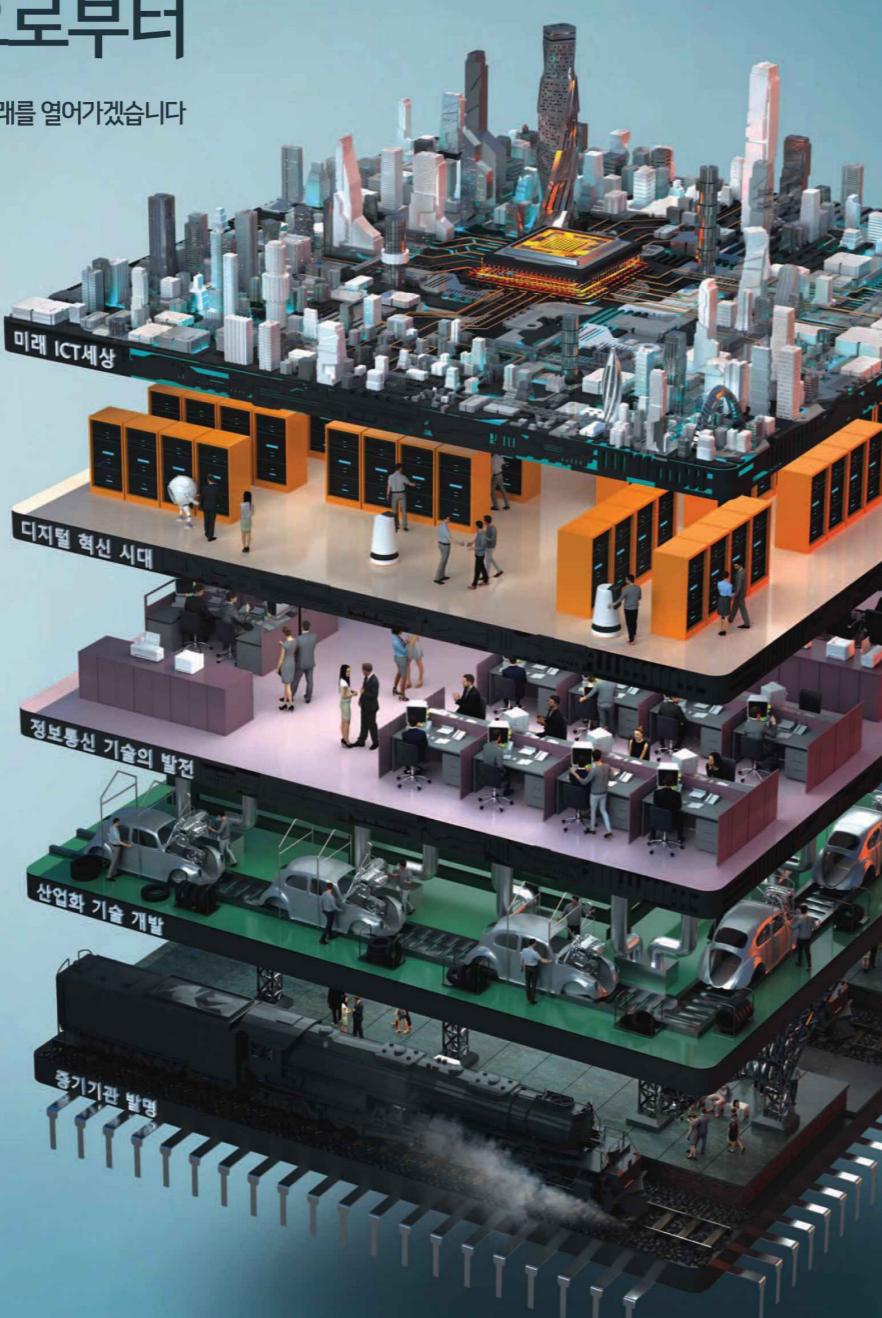
아이폰15 출시 직전 사전 예약에서 20대와 30대 예약자 비율은 SK텔레콤이 77%, KT가 79%로 거의 10명 중 8명에 이르렀다.

SKT가 전날부터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을 통해 아이폰에 대해서도 통화 녹음과 요약 기능을 제공한 것도 아이폰15 흥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닷은 이날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순위 1위에 올라 있다.

/ 박재호 기자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WAVE

BNK부산은행, 창립 56주년 기념식…“바르고 강한 은행”



BNK부산은행은 25일 오전 본점 대강당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열고 ‘바르고 강한 은행’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은행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내실

에 기반한 성장, 사업구조 혁신, 고객 중심 디지털금융, 지역과 연결고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경영방침을 밝혔다.

방성빈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고객 중심의 경영과 부산은행만이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67년 10월 25일 자본금 3억원, 임직원 82명으로 설립된 부산은행은 현재 자본금 9천774억원, 임직원 3천700여 명의 지방은행으로 성장했다.

/ 김민재 기자

식당 종이컵 등 일회용품 규제 단속 유예되나…소상공인 간담회

소상공인 단체 한목소리 “계도기간 연장”…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식당 일회용 종이컵’과 ‘편의점 일회용 봉지’ 사용 금지 조치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환경부가 25일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연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커피로스터연합,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인력난을 이유로 식당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는 자영업자 경영 여건을 들어 계도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대신 생분해성 봉지를 사용하는 등 규제 이행 기반은 마련된 만큼 계도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 동시에 비닐봉지를 대체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편의점들이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의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식당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등 일부 항목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 결과를 알린 보도자료 제목도 ‘환경부와 중기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손 잡다’로 소상공인

쪽 의견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나 지역 실정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면 규제가 정착하는데 더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규제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있지만 유연성을 키우는 쪽으로 제도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추가 간담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역별 시행도 검토 중이다.

현행 법규상으로 2025년 12월 2일 전에 전국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야 하는데 제도 시행 여부를 자체가 정하게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 문희영 기자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마침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1: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유치까지

IBK 창공

혁신·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IBK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7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 e-mail : ibkethics@ibk.co.kr

포스코노조 쟁의행위 투표에 협력사·공급사 “교섭 복귀해야”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 출범

포스코 내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임·단협 결렬로 쟁의행위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자 포스코 안팎에서 자체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트장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만약 파업이 강행되면 우리 회사 경쟁력은 돌아갈 수 없는 타격을 받고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닥칠 것”이라며 “파업은 노사뿐만 아니라 직원 간에도 갈등을 심화시켜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만 남긴다”고 주장했다. / 배윤성 기자

지진 나면 ‘휘청’…강원 건축물 10동 중 8동은 내진 설계 없어

올해 동해서 84건 발생…“내진설계 의무 대상 소급 범위 확대해야”

올해 들어 강원 동해 해상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무려 84차례나 잇따르면서 피해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나 도내에서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여전히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윤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17만5천659동 중 내진성능이 있는 건축물은 101만4천 185동(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35만5천 584동 중 12.9%(4만5천821동)만이 내진 기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공공기관은 22.5%, 민간 건물은

16.3%만이 내진 확보가 돼 있었다. 이는 전국에서 전남(10.6%), 경북(11.7%), 부산(12.2%), 경남(12.4%)에 이어 뒤에서 다섯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동해 해상에서는 올해에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0건 발생했고,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총 84건의 지진이 났다.

지난 5월에는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해 소방 당국에 주민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내진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내진 설계 대상이 확대되는 동안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내진 설계율은

이 단체는 “냉천 범람이란 조유의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 굳건하게 지켜온 우리의 일터를 다 함께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롭게 현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노조는 파업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과 12일에 각각 포스코 광양지역 협력사협회와 포항지역 협력사 협회가 각각 성명서를 통해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협력사는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교섭 복귀를 촉구했다. / 배윤성 기자



곡성군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주민이 먼저 양수발전소 유치 나섰다”

곡성군 역량 집중

전남 곡성군은 25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수발전소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 인구는 1960년대에는 10만명이 넘었지만 현재는 2만6천명대로 급감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약 40%이고 연간 출생아 수는 40명대에 불과해 청년인구 비율도 매우 취약하다.

곡성군은 예정 부지가 유역변동이 없는 보성강 지류에 자리 잡고 있는 점, 생태 1등급 지역이나 특별관리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 수몰 지역도 타 지역 대비 적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막바지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곡성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후보지로 언급됐다”며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곡성군과 곡성군의회는 양수발전소

/ 양희성 기자

서울 모든 한강공원에 ‘버스킹 존’ 22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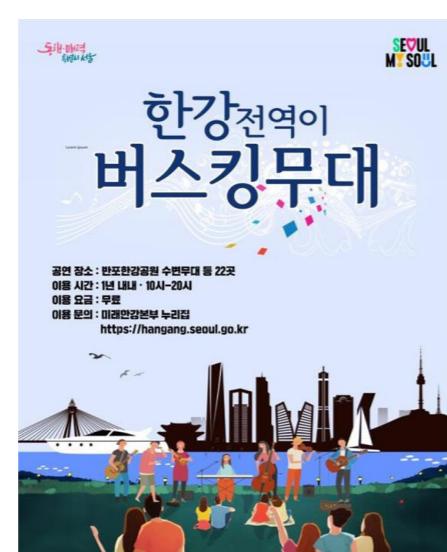
서울시는 11개 모든 한강공원에 1년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킹(거리 공연) 존’ 22개를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강공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버스킹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한강을 ‘버스킹 성지’로 만들고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뚝섬한강공원과 여의도한강공원에는 4개, 망원한강공원에는 3개, 잠원한강공원·양화한강공원·강서한강공원에는 2개, 나머지 한강공원에는 1개가 각각 설치됐다.

주요 버스킹 존은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 망원한강공원 내 서울함공원 앞, 뚝섬한강공원 음악분수 앞 등이 있다.

서울시는 버스킹 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https://hangang.seoul.go.kr/www/main.do>)에 버스킹 존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버스킹 장소 위치와 무대 신청 방법, 장소별 담당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하고 싶은 예술가는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를 내려받아 공연 희망 날짜·시간을 작성한 뒤 각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센터별 사전 심사를 거쳐 홈페이지에 승인 여부를 게재한다. 공연은 오전 10시~오후 8시 3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스피커(확성기, 앰프)는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주간(오전 10시~오후 6시)에는 65dB(데시벨) 이하, 야간(오후 8~8시)에는 60dB 이하로 생활소음·진동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예술인들에게 한강공원을 무대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대를 찾으나가겠다”며 “시민·예술가가 보다 손쉽게 공연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적인 홍보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윤석 기자

5·18 원로들 “갈등에 매몰되지 말고 위상 정립해야”

광주시의회 특위, ‘민주 원로’ 초청 간담회 개최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25일 광주 동구 한식당에서 5·18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원로들과 간담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 노력과 특위 활동 등에 대한 고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안성례 전 광주시의원, 전홍준 광주민주화운동 동지회 고문, 김정길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김후식 전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박경린 전 YWCA사무총장, 임추섭 참교육 전교조 창립위원, 서명원 전 인권교육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원로들은 1991년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네 번째 출범한 5·18 특위를 응원하면서 “5월 단체 간 갈등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과 함께 5·18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초대 5·18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안성례 전 시의원은 과거 특위 활동 자료를 전달하며 “5·18이 미래세대에도 건강한 영향을 주도록 위상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전홍준 고문은 “5·18 정신 계승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활동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길 상임대표는 “5·18이 민중항쟁인지 민주화운동인지 아직도 불명확해 더 늦기 전에 성격 규정과 광주 정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18 특위는 올해 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료를 앞두고 보완 입법 필요성, 5·18 헌법 전문 수록 건의 활동, 기념사업 중복 방지를 위해 올해 7월 출범했다.

지난 달 청소년·시민, 5월 단체 관계자들과 1·2차 시민토론회를 열었지만 오는 31일 계획했던 5월 공법단체, 5·18 기념재단,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3차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정다은 5·18 특위 위원장은 “5·18 기념사업 체계 확립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가치 공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최희경 기자



SK telecom

T roaming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 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경기·수원 중소기업,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활용해 수출 확대”

월드옥타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수출상담회 개최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막

경기도 및 수원시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 중인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얻었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는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수원의 6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 판로 개척과 현지 진출 노하우 전수를 위해 800여명의 한상이 집결한 이번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활용했다.

경기도 내 기업들은 세계 68개국에서 참여한 한인 바이어 70여명과 3~6회씩 매칭 상담을 하며 제품 수출 방안과 제품의 경쟁력을 논의했다. 일부 바이어는 즉석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참여했다.

가정용 아이디어 제품과 자동차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비즈클루는 지난해 말 수출용으로 내놓은 인스턴트 김치 키트 ‘컵채’로 250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컵채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5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컵

라면 형태의 즉석 김치다.

월드옥타 캐나다 벤쿠버지회장인 정용중 인터비즈컨설팅 대표와 미국 시카고지회 소속 임창만 와이씨엠 코퍼레이션 대표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비즈클루와의 계약에는 홍순용 시카고지회장의 소개가 도움이 됐다. 홍 지회장은 “북미에서는 김치가 아주 인기가 많은데 뛰어난 휴대성에 식감도 좋아 해외 시장에서 통할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양이 허브 ‘캣닙’(Catnip)을 비롯해 이를 활용한 고양이용품을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꿈냥은 월드옥타 e

비즈위원회장인 김창해 상해유니소프트유한공사 대표와 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문현진 꿈냥 대표는 “아마존을 활용해 미국과 일본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데 한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은 처음”이라며 “덕분에 반려묘 시장이 큰 일본과 중국권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아시아권을 주목하며 개인용 요화학분석기를 판매하는 브레인테크 등에도 꾸준히 바이어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누구나 소변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블루투스 기능의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으로 건강 정보를 확인한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정길현 브레인테크 기획실장은 “스리랑카와 태국 등 6개국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혁신 제품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땅덩이가 크지만,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원격 진료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갖춘 스마트 샤워기와 여행용 샤워기 등 욕실용품을 판매하는 세비앙에도 관심이 쏠렸다. 세비앙은 국내로 여행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류 콘셉트에 맞춘 여행용 샤워기도 내놨다.

이근석 세비昂 해외영업팀 부장은 “동남아는 지질학적으로 물속에 석회질 성분이 많아 인체에 좋지 않다”며 “한국과 생활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위한 공청회 현장

‘킨텍스를 뉴욕처럼’…고양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

킨텍스 일대에 ‘고양 미디어아트 디스트릭트(G-MAD)’ 조성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열어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전하는 시의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뉴욕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비스처럼 다양한 광고물을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남 코엑스 일대가 처음 지정됐다.

시는 국내 최대 전시 복합 시설인 킨텍스와 K 콘텐츠 복합단지인 CJ 라이브시티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조규현 기자

정 후보지로 삼아 미디어아트 디스트릭트(G-MAD)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곳은 수도권 광역 행정 철도(GTX)-A를 비롯한 교통 기반시설이 우수하고 일산테크노밸리와 스마트시티, IP 융복합 콘텐츠 복합단지 등이 집약돼 최적 후보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정책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열어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전하는 시의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KP 공연장인 CJ 아레나와 한류천 미디어 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공간이 완공되면 이 지역에 연간 1천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유입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이동환 시장은 “창의적이고 예술적

인 광고물을 활용해 특색 있는 지역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 자유

표시구역 지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

겠다”고 밝혔다.

/ 조규현 기자

Instagram.com/MercedesBenzkr Facebook.com/MercedesBenzKorea Youtube.com/MercedesBenzKorea_Official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 www.mercedes-benz.co.kr 카카오톡 채널 추가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3.9km/kWh (도심 4.0km/kWh, 고속도로 3.7km/kWh)
1회 충전거리 404km, 공차중량 2,540kg, 배터리용량 88.4kWh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 3.8km/kWh (도심 3.9km/kWh, 고속도로 3.6km/kWh)
1회 충전거리 401km, 공차중량 2,510kg, 배터리용량 88.8kWh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성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수밤바다 수놓는 불꽃쇼…불꽃축제 28일 이순신광장서 열려

전남 여수시 대표 축제인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오는 28일 오후 여수시 종양동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불꽃 쇼와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불꽃 쇼는 오후 8시부터 이순신광장 앞 해상에서 35분간 여수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이순신광장 앞 장군도에서 쏘아 올려진 불꽃이 음악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진다.

행사 이전과 이후에는 관람객과 공연팀이 하나가 되는 버스킹 공연이 마련된다.

다.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 당일 오후 5시부터 이순신광장 일대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시내버스는 통행이 가능하며 운행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

시는 임시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관람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이문봉 여수밤바다불꽃축제추진위원장은 25일 “여수만의 스토리가 있는 색다른 불꽃 쇼를 준비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추억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자혜 기자



민주당 대구, 정당현수막 시조례

가치분 신청…“상위법 위배”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시당 한 관계자는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또한 통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며 이를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현재 정당현수막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어 “광주시는 잘못 시작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정당성 관련 모든 사업을 철회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15개 NGO “정율성 사업 중단하고 시민공청회 열자”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모임인 ‘공산주의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는 25일 “중국인민해방군·조선인민군 군기를 자국한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 남구 양립동에 있는 정율성로(路)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행적 논란으로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잘못 시작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정당성 관련 모든 사업을 철회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대안포럼·특구폐지국민운동·남도역사포럼 등 지역 시민 사회 단체 15개로 구성된 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주광주 종영사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박민준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이 함께 합니다

CHANGE KB
OUR LIFE



KB 증권

손흥민처럼 22세에 UCL 데뷔골…이강인 시대 열린다



데뷔골 넣고 동료와 기쁨 나누는 이강인

한국 축구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강인은 26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AC밀란(이탈리아)의 2023-20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PSG의 3-0 승리를 때

조지는 득점을 올렸다.
워렌 사이리에메리의 컷백을 곤살루 하무스가 뒤로 헐리자 페널티아크 부근의 이강인이 원발 땅볼 슈팅을 골대 오른쪽 하단에 꽂았다. 이강인의 PSG 데뷔골이자 UCL 무대에서 넣은 생애 첫 득점이었

다. 골망을 훔든 이강인은 동료들과 열싸 안으며 데뷔골을 넣은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한국 축구에도 의미가 큰 골이었다.

이강인은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만 22세의 나이에 UCL 본선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은 둘뿐인 한국 선수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 소속이던 2014년 10월 1일 벤피카(포르투갈)를 상대로 한

국인 UCL 최연소 데뷔골 기록을 썼다. 당시 손흥민의 나이는 만으로 정확히 22세 3개월이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날 이강인

PSG 이강인, AC밀란 상대로 3-0 쐐기포 작렬

이 손흥민에 근접한 기록을 냈다. 경기가 열린 현지시간인 25일을 기준으로 이강인의 나이를 계산하면 22세 8개월 13일이다. 손흥민보다 5개월여 늦었을 뿐이다.

게다가 이강인은 전문 골잡이인 손흥민과 달리 공격 전개에 치중하는 미드필더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소속이던 2019년 9월에는 한국인으로 가장 어린 18세 6개월의 나이에 UCL 데뷔전을 치르며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착실하게 성장한 이

강인은 프랑스 최강 PSG의 일원이 됐고, 대표팀에서의 입지도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이강인은 이달 트니지, 베트남을 상대로 치른 평가전 2연전에서는 A매치 데뷔골을 포함, 3골 1도움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잇따라 데뷔골을 터뜨리며 손흥민의 뒤를 잇는 한국 축구의 에이스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벤치에서 지켜본 베트남전에서 교체돼 들어오는 이강인을 안아준 손흥민은 "저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전환기'를 보내는 PSG도 이강인의 데뷔골에 활짝 웃고 있다.

PSG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작별했고, 네이마르(알힐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보냈다. 시즌 초 구단과 갈등을 빚어온 퀸리안 음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앞으로 공격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을 터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이 득점포를 기동하며 엔리케 감독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겼다.

한편, 축구 통계 사이트 풋풀은 이강인에게 7.6점의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

교체로 20분 정도를 소화했을 뿐이지만, 이날 PSG 필드 플레이어 중 4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강인은 93%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15차례 패스를 시도, 이 중 14번을 의도한 대로 동료에게 보냈다.

/ 최준용 기자



오기노 감독(오른쪽)과 레오

"타협 없다"는 오기노 감독표 배구

강서브 버리고 블로킹 방점

한국 프로배구의 많은 감독이 서브를 중시한다.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 렐리로 인한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공격 성공률을 현저히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나 토종 주포가 서브권을 잡는 경우 대포알 서브 몇 개로 경기 분위기를 뒤집는 장면도 왕왕 나온다.

공이 허무하게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를 벗어나는 경우를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감독이 과감한 서브를 지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취임한 오기노 마사지 OK 금융그룹 감독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한국 프로배구 남자부 사상 첫 일본인 감독이다. 오기노 감독은 지난 24일 경기도의 정부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브 범실은 굉장히 아깝다. 서브 범실을 했을 때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브 득점을 노리기보단 체계적인 블로킹과 디그 등 탄탄한 수비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노 감독은 "블로킹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상대에게) 친스볼이어도 좋으니 볼을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의 플레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브로 리스크를 가져가기보다는 (블로킹, 디그) 시스템으로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 지금의 OK 금융그룹에 맞는 색깔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기노 감독은 선수들에게 한 경기당 서브 범실 개수를 전체 10개 이하로 제한 했다. 지난 배구 세계랭킹 4위 일본은 올해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남자부 3위에 오른 아시아 배구 최강국이다. 반면 한국 배구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회 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반 4강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올 시즌 오기노 감독의 실험이 주목되는 이유다.

/ 황희성 기자

kt 벤자민, 재충전 완료 "몸 상태 100%…모든 준비 끝났다"

시즌 막판 원활 통증으로 20일 넘게 휴식…재충전하며 PO 정조준

프로야구 kt wiz의 외국인 선발 투수 웨스 벤자민(30)은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 눈부신 역투를 펼쳤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팀을 위해 희생하는 자세가 남달랐다.

그는 지난해 정규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를 마치고 이를 힘으로 쏟아낸 KIA 타이거즈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불펜 등판 했고, 다시 사흘만 쉬고 키움 히어로즈와 준플레이오프(준PO) 경기에 선발 출격했다. 비록 kt의 도전은 준PO에서 멈춰 섰지만, 벤자민의 투혼은 많은 야구팬의 가슴을 뛰게 했다.

벤자민은 올해 다시 한번 가을야구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그는 25일 오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마친 뒤 연합뉴스와 만나 "포스트시즌 출전 준비는 모두 마쳤다"라며 "올해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웃었다. 벤자민은 몸 상태에 관해서도 "100%로 올라왔다"라며 "23일 불펜 투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했다.

벤자민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15승 6패 평균자책점 3.54의 양호한 성적을 거뒀으나 시즌 막판 컨디션 악화와 부상으로 주변의 우려를 낳았다.

그는 지난 달 22일 KIA 타이거즈전을 마친 뒤 피로감을 호소했고, 14일 만에 등

판한 이달 6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단 20개의 공을 던진 뒤 원활 통증으로 조기 강판했다. 이상 신호를 보인 벤자민은 이후 등판하지 못했다. 약 20일 동안 휴식과 회복에 전념했다.

벤자민은 주변의 우려에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최고의 몸 상태로 올해 포스트시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했다. 벤자민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중요한 '열쇠'다. 투수 왕국 kt는 고영표, 윌리엄 쿠에바스 등 선발 지원이 많지만, 정규시즌 1위 LG 트윈스에 강한 모습을 보인 선수들은 적다.

고영표는 LG와 정규시즌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7.36으로 부진했고, 쿠에바스



미소 짓는 kt wiz 벤자민

역시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1.45로 좋지 않았다.

반면 원순 투수 벤자민은 좌타자들이 즐비한 LG 타선을 상대로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84의 특급 성적을 거뒀다.

kt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면, 벤자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벤자민은 "LG전에 자신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플레이오프에 전념해야 한다"라며 "정규시즌 성적은 신경 쓰지 않고 매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윤성환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장항준·송은이 “코흘리개 시절 만나 이젠 같이 영화 찍네요”

‘오픈 더 도어’ 감독·제작자로 협업…“32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친구”

영화감독 장항준(54)과 방송인 송은이(50)는 32년 지나. 서울예대 연극과에서 각각 89학번 복학생과 91학번 재학생으로 처음 만나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년간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은 25일 개봉한 영화 ‘오픈 더 도어’를 통해 처음으로 감독과 제작자로 협업했다. 장 감독이 연출을, 송은이가 대표로 있는 콘텐츠 회사 컨텐츠랩 비보가 제작을 맡았다.

이날 마포구 컨텐츠랩 비보 사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둘 다 어엿하게 직업적 성취를 이루고서 함께 영화 작업을 했다는 건 인생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아웃사이더처럼 도서관에서 글 쓰고 책 읽던 오빠가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이뤘고, 그 어렵다는 영화계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저 역시 30년간 방송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갔을 때 오빠가 ‘코흘리개였던 송은이와 장항준이 같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송은이)

30년이 넘는 세월을 지우로 지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 일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두 사람의 비결은 뭘까.

장 감독은 “송은이가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영화 ‘오픈 더 도어’ 제작·연출한 송은이(왼쪽), 장항준 감독

고 했다. 대학생 때나 유명 방송인이 된 이후, 한 회사의 대표가 된 지금도 늘 한결 같기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인연이 지금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가족도요. 저희의 경우 동력은 서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거지요.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은이나 어떤 환경에서든 늘 똑같아요.”

송은이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는 가치관도 같다”며 “둘 다 소주 한잔에 찌개 하나 먹는 것도 소중하다

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송은이가 ‘오픈 더 도어’로 영화 제작에 도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장 감독에 대한 신뢰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영화 작업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장 감독님은 예측할 수 있고 현장에서 큰소리가 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5년 송은이가 설립한 컨텐츠랩 비보는 팟캐스트부터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을 만들고 있지만 영화를 제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은이는 “꿈을 하나 이룬 것 같다”며 “첫 영화로 부끄럼지 않은 작품을 내놔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는 20대 시절 종로 일대 극장을 돌며 ‘영화 관람 투어’를 할 만큼 영화를 좋아했다고 한다. 회사 설립 후에는 언젠가 좋은 이야기만 만나면 영화 제작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장 감독이 쓴 ‘오픈 더 도어’ 단편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 이를 영화로 제작하기로 했다. 장 감독은 “이게 웬 떤인가” 생각하면서 장편 시나리오로 확장했다.

이 영화는 미국 뉴저지의 한인 세탁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했다. 일반적인 스릴러 영화와는 달리 범인이 누구인지 먼저 알려준 다음, 이 가족이 무엇 때문에 비극을 맞게 됐는지를 시간 역순으로 보여준다.

/ 이은정 기자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박민영·나인우

인기 웹툰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 tvN은 내년 1월 1일 처음 방송 예정인 새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배우 박민영, 나인우, 이이경, 송하윤, 이기광, 공민정 등을 캐스팅했다고 25일 밝혔다.



드라마는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경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박민영이 회귀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인공 강지원 역을 맡았다. 원래는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인지만, 삶의 태도를 180도 전환하고 운명을 바꿔나간다.

외모와 성성을 다 갖춘 완벽한 유지혁 역에는 나인우가 나선다. 마음먹은 것은 모두 이뤄왔지만, 짜사랑하는 강지원 앞에서는 서투르고 어설퍼진다.

이이경은 강지원의 회귀 전 남편 박민

환을 연기한다. 세상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는 종으로 생각한다.

송하윤은 강지원의 친한 친구이자 악역인 정수민을 맡았다. 순수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내면은 비틀어져 있다.

이기광은 고등학교 시절을 강지원과 함께했던 훈남 세프 백은호를, 공민정은 강지원의 회사 동료 양주란을 연기한다.

드라마 ‘낮과 밤’의 유담 작가가 각색을,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시리즈의 박원국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 노건우 기자

넷플릭스 총기 액션 재난 스릴러

‘트리거’에 김남길·김영광



왼쪽부터 배우 김남길·김영광

배우 김남길과 김영광이 넷플릭스 새 시리즈에서 화려한 총기 액션에 도전한다.

넷플릭스는 김남길과 김영광이 주연하는 시리즈 ‘트리거’ 제작을 확정 지었다고 25일 밝혔다.

‘트리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총기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액션 재난 스릴러다.

김남길은 연쇄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도를 연기한다. 스나이퍼로 활동했던 전직 군인이다. 정의감 넘치는 혁지 경찰이다.

사건의 중심에서 불법 총기의 출처를 찾는다.

무기 브로커 세계의 핵심적인 인물 문백은 김영광이 맡았다. 능청스러워 보이지만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이어가는 캐릭터의 양면성을 묘사한다.

구체적인 공개 일자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 황희정 기자



SBS ‘옆집 남편들—녹색 아버지회’

‘녹색 아버지회’ 차인표 “후세가 살 지구를 위한 프로그램”

“제가 이 지구에서 산 지가 벌써 56년이에요. 지구가 주는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았는데도 후세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배우 차인표)

내 아이가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아빠 4인방이 나선다.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홀에서 열린 SBS 예능 ‘옆집 남편들—녹색 아버지회’(이하 ‘녹색 아버지회’) 제작발표회에서 녹색 아버지회 회장

을 맡은 차인표는 “섬외받았을 때 제가 정말 기다리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잊어버리기 쉽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재밌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꼽았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지구를 지키려 가

/ 김성준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에너지 를
클린하게
안전하게**

한국수력원자력은 한 수 앞선 에너지 기술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로
한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

SAMSUNG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